

민요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사설 표준화 방안

이성훈*

〈목 차〉

- I. 머리말
- II.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활용 양상
- III.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표준화의 필요성
- IV.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표준화 방안
- V. 맺음말

〈국문초록〉

노동 현장에서 노동요의 전승이 단절된 지는 오래다. 노동요의 전승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요의 전승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반인을 상대로 민요의 전승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사설의 표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요의 요증명을 통일하지는 주장은 있었지만 사설을 표준화하지는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주지하듯이 구비문학인 민요의 사설은 기록문학과는 달리 요증별 사설이 특징인이 창작한 게 아닌 공동작이다. 특정한 사설만을 대표적인 사설로 선정하거나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 글은 민요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사설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았다.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인 노(櫓) 젓는 노동은 동력선의 등장으로 소멸되었고 현장에서의 전승도 단절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는 가장 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을 위한 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기존 자료집에 수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중에는 사설을 오기하거나 어석의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다. 제주도와 본토에서 채록된 사설 가운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설들을 선택하고 사설의 오기와 어석의 오류를 바로잡은 다음에 가창기연(歌唱機緣)을 중심으로 사설을 분류하고 표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핵심어 : 사실 표준화, 민요, 노동요, 해녀노젓는소리, 전승과 교육, 제주도, 가창기연

I. 머리말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뱃사공과 함께 돛배를 타고 본토로 출가(出稼)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뱃물질하러 오갈 때, 좌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와 우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 또는 선미에서 하노를 짓는 뱃사공과 좌·우현에서 짓걸이노를 짓는 해녀 등으로 짝을 나누어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나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의 방식으로 부르는 노래이다.¹⁾ 기존의 민요자료집이나 논저에서는 <잠녀가>·<해녀요>·<해녀가>·<해녀노래>·<노젓는노래>·<노젓는소리>·<잠녀소리>·<해녀노젓는노래>·<해녀노젓는소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녀 사회에서는 <해녀(질)노래>·<해녀(질)소리>·<잠녀(질)소리>·<잠수(질)소리>·<네젓는노래>·<네젓는해녀노래>·<해녀(잠녀)질하는소리>·<물질하는소리> 등으로 일컬어진다. 음악 연구자들은 <해녀노젓는소리>라는 통일된 요종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문학 연구자들은 <해녀노래>와 <해녀노젓는소리>라는 요종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해녀노젓는소리>가 여러 가지 노래명으로 불림에 따라 자칫 기능이나 종류가 다른 노래로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젓는 노동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해녀노젓는소리>라는 분류명으로 새롭게 설정하여 통일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²⁾ 민요의 요종명을 통일하자는 주장³⁾은 있었지만 사실을 표준화하자는 논

1)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41쪽.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사 및 분류 명칭』,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15~43쪽 참조.

3) 동종의 민요라고 할지라도 각기 다른 노래명을 사용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종별 개념의 정리와 통일된 노래명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의는 없었다. 다만 아리랑의 경우는 아리랑 사설의 정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⁴⁾가 있었지만 사설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주지하듯이 구비문학인 민요의 사설은 기록문학과는 달리 요종별 사설이 특징인이 창작한 게 아닌 공동작이다. 특정한 요종의 사설 가운데 어떠한 사설을 대표적인 노랫말로 선정하거나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전승되는 민요의 선율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지만 사설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유희요(통속민요)의 경우는 어느 정도 교육용 사설이 표준화되어 있지만 노동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느 노동요와 마찬가지로 <해녀노젓는소리>의 전승은 작업과 분리된 채 돛배의 노를 젓는 현상이 아닌 민요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 만큼 공연이나 교육용 사설의 표준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해녀노젓는소리>는 자연적인 조건이 아닌 인위적인 조건에서만 전승이 이루어진다. <해녀노젓는소리> 전승과 교육을 위한 사설의 표준화가 본 논의의 출발점이자 목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은 해녀들이 돛배의 노를 젓는 노동이다. <해녀노젓는소리>뿐만 아니라 여느 노동요도 가창기연이 소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요의 전승이 단절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노동요를 가창할 수 있는 가창자는 당대에 특정 노동을 하면서 특정 노동요를 배웠던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창기연이 소멸되고 전승도 단절된 경우와 가창기연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전승이 단절된 경우가 있다. <해녀노젓는소리>가 전자에 속한다면 <밭매는소리>, <모심는소리> 등은 후자에 속한다.

노동요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다. 가창기

위한 방안은 강등학의 ‘민요의 노래명 표준화 방안’과 ‘한국 민요 분류표’[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한국민요학회, 2004), 11~48쪽]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정우택, 『아리랑 노래의 정전화 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7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287~317쪽.

연이 소멸되고 전승이 단절된 노동요를 화석화된 도서관의 자료로만 남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비록 노동요의 사설이 원형이 아닌 일부 변형된 형태라고 할지라도 후세에 전승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창기연인 노동이 소멸된 노동요가 자연적인 조건에서 전승이 단절되었다면, 인위적인 조건에서라도 전승시켜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민요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사설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중심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활용 양상을 살펴본 다음에 <해녀노젓는소리>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사설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설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활용 양상

1.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현황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수집한 자료와 자료집은 체보자·채록지역·채록일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몇 편의 각편만을 단편적으로 소개한 자료, 제주 방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창자가 구연한 발음 그대로 사설을 수록하고 난해한 방언은 주석을 단 자료, 사설의 제재나 내용을 중심으로 사설을 분류하여 수록하고 표준어로 어석을 달고 어휘의 주석까지 덧붙인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⁵⁾에 따라 체보자가 구연한 대로 사설을 수록하고 체보자의 간략한 생애력까지 기술한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⁶⁾

5) 조동일,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 『구비문학의 세계』(새문사, 1980), 48~98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 조사 방법』(1979).

기왕의 제주도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수집한 사설을 정리하는 방식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집된 자료의 사설을 오기하거나 어석의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먼저 수집한 사설을 정리하는 방식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정리한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사자의 관점에서 사설을 의미단락으로 나눈 다음에 사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설을 제보자가 구연한 순서대로 정리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⁷⁾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후자의 경우는 김영돈의 『한국의 민요』⁸⁾와 현용준·김영돈의 『한국구비문학대계』 9-1·2·3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녀들이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일정한 순서대로 구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설을 의미단락별로 나누고 내용상 분류하여 수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창자는 구연상황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설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창자가 구연한 순서대로 사설을 수록해야 구연할 당시에 가창자의 심리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의 사설을 오기하거나 어석의 오류를 범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설의 오기는 수집자가 노래를 잘못 청취하거나 구전되는 동안 사설의 어휘가 와전된 경우와 민요자료집을 편저할 때 원저와는 다르게 수록한 경우가 있다. 또한 어석의 오류는 자칫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이 지닌 본래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¹⁰⁾ <해

6) 기왕의 제주도민요 자료집에 수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개관 및 해제에 관한 자세한 현황은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 수록 자료집 개관 및 해제」, 『영주어문』 제9집(영주어문학회, 2005), 271~290쪽을 참조할 것.

7)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84).

8)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어문화사(민속원, 1993).

9)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녀노젓는소리> 노래명도 여느 요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데, 강동학¹¹⁾은 민요의 노래명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서는 노래명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사설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해녀노젓는소리>의 전승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민요 교육을 하려면 사설의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2.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활용 실태

기존 제주도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방편과 <해녀노젓는소리>를 전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여짜나 이어도사나 어여도사나
 요 넬 젓엉/ 어덜가리
 진도바당/ 흥 골로 가세
 흥 착 손엔/ 태와 심고
 흥 착 손엔/ 빗창 심어
 흥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저싱도가/ 분명하다 히
 이어도사나/ 처라 처라

10)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오기와 오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한국민요학』 제16집(한국민요학회, 2005), 235~262쪽을 참조할 것.

11) 강동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한국민요학회, 2004), 11~48쪽.

...(중략)...

요 낫둥아/ 저 낫둥아

슴통을/ 먹었느냐

지름통을/ 먹었느냐

둥긱둥긱/ 잘 올라오네 히

이여도사나/ 처라 처라

위에 제시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어 교육자료』 II - 제주어와 생활¹²⁾에 수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이다. 학습목표를 “1. 노 젓는 소리에 나오는 제주어를 알 수 있다. 2. 해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로 명시해놓고 있고, 학습활동에는 “1. 위의 노래 가사 중, 다음의 표준어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찾아 보자. 2. 위 1번을 바탕으로 하여 ‘노 젓는 소리’를 표준어로 바꾸어 보자. 3. 제주어로 된 노래와 표준어로 바꾼 노래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에 비추어보면 위에 인용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민요 사설을 통한 제주어 교육이 주된 목적이고, 해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부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사설 내용만으로 해녀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해녀는 제주도에만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토 해안지역에도 거주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에서만 물질을 한 해녀와 본토 출가물질 경험이 있는 해녀가 있고, 본토에는 제주에서 출가물질을 와서 정착한 해녀와 본토에서 태어나 물질을 하는 해녀도 있다. 따라서 해녀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물질작업 실태, 출가물질 경험, 노 젓는 노동, 해녀의 공동체 문화, 해녀와 관련된 어휘, 채취물, 작업 도구, 조류와 풍향, 소득 실태, 해녀복, 식생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12) 『제주어 교육자료』 II - 제주어와 생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204~210쪽.

다음으로 <해녀노젓는소리>를 전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은 돛배의 노를 젓는 노동이다. 동력선의 등장으로 <해녀노젓는소리> 가창기연이 소멸된 지는 오래다.¹³⁾ 돛배의 노를 젓는 노동과 <해녀노젓는소리>의 구연이 단절된 만큼 <해녀노젓는소리>의 구연과 전승이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 조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해녀노젓는소리>는 2007년부터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해녀축제에서 해녀박물관이 주최하는 해녀민속예술공연이나 해녀박물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교육에서 불리고 있고, 간혹 제주 민요패 소리왓¹⁴⁾이 주최하는 공연에서 불리는 게 고작이다. 이때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기능 보유자 강등자·김영자가 구연한 사설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해녀박물관에서 제주민요의 전수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해녀박물관 연구사 좌혜경에 의하면 <해녀노젓는소리> 전수교육 시 기본 텍스트는 <해녀노래> 기능보유자의 사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설의 고정화를 우려하여 가급적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는 지양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주어 교육용이나 민요 전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해녀노래> 기능보유자의 사설만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보유자인 김경성이나 강등자·김영자가 부른 사설이 <해녀노젓는소리>의 정전화된 사설로 고정화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능보유자가 부르는 선율이나 사설이 빼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부른 사설만을 <해녀노젓는소리>의 대표적인 사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은 가창자

13)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가창기연의 소멸시기』, 『한국민요학』 제24집(한국민요학회, 2008), 141~161쪽.

14) <http://cafe.daum.net/soriwat>

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설의 내용도 다양하고, 또한 <해녀노젓는소리> 수집은 김주백이 1929년에 수집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1편¹⁵⁾을 필두로 현재까지도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인이 구연한 사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해녀노젓는소리> 전수교육을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널리 가창되는 사설을 기반으로 사설을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Ⅲ.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표준화의 필요성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노동현장에서 노동요의 전승이 단절된 지는 오래되었다. 노동요의 전승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요의 전승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반인을 상대로 민요 전승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사설의 표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민요의 전승이 인위적인 상태로 전승되고 있지만, 사설을 표준화하려는 작업은 없었다. 그렇다고 특정인이 구연한 사설만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거나 무턱대고 기왕에 수집된 자료집의 특정 사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민요를 가르칠 수는 없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해녀노젓는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도보다는 본토에서 주로 가창되었던 민요인 만큼 제주도에서 채록된 사설만을 대상으로 사설의 표준화를 시도하는 것 또한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제주도와 본토에서 채록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가운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설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설을 표준화된 텍스트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15) 김주백, 『여인국순례, 제주도해녀』, 『삼천리』 창간호(삼천리사, 1929), 22~23쪽.

대한 제주해녀와 본토해녀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요 연구자의 동의를 산출하게 만든다. 물론 공연기획자나 민요교육자가 공연이나 교육용 기본 텍스트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와 본토에서 ‘뱃물질’¹⁶⁾을 한 경험이 있는 특정한 몇몇 해녀가 구연한 사설을 선택하는 것은 공연기획자나 민요교육자의 입장이나 시기에 따라 형성된 주관적인 판단의 잣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화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 필요성은 네 가지다.

첫째, <해녀노젓는소리>의 선율은 8분의 6박자 하나지만 사설은 가창자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설을 가창하기 때문이다. 민요 사설에 나타난 가창자 개인의 체험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일 수는 없다. 가창자 개인의 특수한 체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창자 개인은 사설의 재생산을 시도하거나 확장하기도 한다. 요중 간 사설의 차용과 확장 등이 그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자들이 학교 현장이나 민요 전수회에서 어떠한 내용의 사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노 젓는 노동과 <해녀노젓는소리>가 분리된 채 전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서도 민요 사설의 표준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기존 자료집의 사설이 오기나 어석이 오류된 경우가 종종 있기¹⁷⁾ 때문이다. 만약 오기된 사설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교육시킨다면, 가창기연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기된 사설이 계속 전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Thomas Gresham이 제창한 법칙인 악화가 양화를

16)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로 나갈 때에는 그 沿海의 지형에 따라 헤엄쳐 나가거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헤엄쳐 나가 작업하는 경우를 ‘뱃물질’이라 하며,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를 ‘뱃물질’이라 한다[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71쪽].

17)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한국민요학』 제16집(한국민요학회, 2005) 참조.

구축한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릇된 민요 사설의 범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민요 사설이 본원적인 것인 양 둔갑할 우려마저 짙다고 본다. 어차피 민요의 전승이 구전에 의한 전승보다는 문자기록에 의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민요 사설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셋째, <해녀노젓는소리>는 해녀집단의 생활과 문화에서 전승되고 향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사설은 사설의 율격 구조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완결된 스토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화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해녀들의 삶과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 가창자들의 삶과 문화, 노동 환경과 구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설의 표준화를 시도해야 한다. 민요 사설의 표준화는 특정 사설이 학문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창자들은 <해녀노젓는소리>를 가창하면서 해녀 집단의 특정한 정서를 표출하는 어휘들은 습관적으로 모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어휘들은 기피된다. 이른바 ‘향유소’¹⁸⁾가 그것이다.

넷째, 민요 사설은 가창자와 청취자의 지배적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창자 집단의 일반적인 체험을 형상화한 사설의 경우는 가창할 때마다 사설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설의 어미나 조사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비문학인 민요의 특성상 그러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창하는 시간과 장소 등 구연 상황에 따라서도 가창자 자신의 정서가 순간순간 반영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가창자 집단의 지배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준화된 사설이 정전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소통의 의미에서도 청취자의 지배적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민이 청취자일 경우는 사설을 제주방언으로 가창하면 사설의 의미와 지배적 정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반면에 제주도민이 아닌 본토인이 청취자일 경우는 표준

18) 향유소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박관수, 「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민요학』 제20집(한국민요학회, 2007), 97~114쪽; 「풀씨는소리 사설의 위음 원리」, 『한국민요학』 제19집(한국민요학회, 2006), 121~162쪽.

어로 가창하는 게 민요 사설에 나타난 지배적 정서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화된 사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인의 선정한 사설만을 교육하게 된다면 교육자나 공연자가 선정한 특정민요의 사설만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민요 사설의 표준화는 가창 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을 위한 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가창자와 청취자가 민요의 정서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요 사설의 의미와 정서는 가창자 집단에서는 소통이 되지만, 민요 가창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소통이 될 수 없기 십상이다. 사설이 방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동일한 공동체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공연에서는 민요 사설을 방언 그대로 가창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공연에서는 난해한 일부 민요 사설들은 표준어로 바꾸어 가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표준화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효용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녀들의 삶을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서 기존 사설을 재구성한 민요 교육용 사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V.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표준화 방안

민요 공연이나 교육을 위한 민요 사설은 공연 기획자나 전수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사설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요 공연이나 강습을 위한 민요 사설의 텍스트는 민요 연구자들이 기왕에 간행한 민요자료집을 기반으로 사설 내용을 재구성하게 마련이다. 민요 공연이나 강습의

기획자는 공연하려는 민요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 기획자의 시각에 따라 공연 텍스트로서의 민요 사설은 달라질 수 있다. 공연 기획자의 가치 판단이나 해석에 따라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연이나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민요 사설의 가치 판단은 공연 기획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될 수도 있다. 해당 민요 사설의 연구자가 아닌 이상 공연 텍스트로서의 민요 사설은 자칫 사설을 왜곡할 수도 있고 선정된 사설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연하려는 민요의 본질적 성격과 특성을 부각시키려면 민요 사설에 대해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민요 사설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지하듯이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민요 구연과 전승은 단절된 지 오래다. 인위적인 조건에서 민요를 채록할 때 구연되거나 민요 공연과 강습회를 할 때 민요 구연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게 고작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나마 민요를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민요 사설을 표준화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노동 현장에서 민요를 구연했던 제보자는 그 수가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간 채록된 사설의 내용은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다양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보자가 모든 사설을 기억하여 구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표준화된 민요 사설을 텍스트로 하여 민요 공연과 교육을 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사설의 표준화는 4·4조의 2음보 대구형식으로 사설을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화된 사설은 제주도나 본토에서 두루 불려지는 <해녀 노젓는소리> 사설을 대상으로 하되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관용적 표현이나 물질 작업 또는 노 젓는 노동과 관련이 있는 사설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에는 가창자가 개인적 서정을 즉흥적으로 노래한 사설이나 다른 노동요의 사설을 차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실을 표준화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오기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는 가창기연(歌唱機緣)을 중심으로 사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구연상황을 기준으로 사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물질작업 상황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표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실이 오기된 사례를 두 가지만 들고 바로잡아 보기로 한다.

[1]

총각	싸라	섬에나	들게
양식	싸라	섬에나	가게
정심	싸라	고지나?	가게
날죽건		숫바테	무더
궁녀	신녀	물주람	말가 ¹⁹⁾

[2]

總角찾아 물에들제
 양석싸라 섬에가게
 명주바당에 쓸바름불나
 모란탄전 배노아가게²⁰⁾

[3]

요년들아 저서도라
 요늬짜이 불내진들

19) 김주백, 앞의 글, 23쪽.

20) 입화, 『조선민요선』(학예사, 1939), 239쪽.

서늘꽃이 없을만가²¹⁾

하나는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가운데 해녀들이 물질작업 준비를 독려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총각 차라 물에 들게// 양식 싸라 섬에 가게”가 있다. ‘총각 차라’를 ‘총각싸라’,²²⁾ ‘總角차라’,²³⁾ ‘총각찾아’,²⁴⁾ ‘총각타라’,²⁵⁾ ‘총각사람’²⁶⁾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와 ‘총각차라’²⁷⁾나 ‘총각허라’²⁸⁾로 바르게 기록한 경우가 있다. [1]의 “총각 싸라”와 [2]의 “總角찾아”는 ‘총각 차라’ 또는 ‘총각허라’의 오기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의미하는 총각(總角)이 아니라 해녀들이 예전에 무뎌질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털을 비너없이 머리 위에 쪽지고 이명거리리는 끈으로 이마에서 뒷머리로 넘겨 묶는 머리 모습의 하나이고,²⁹⁾ ‘차라’는 쪽저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녀들이 노를 힘차게 젓도록 지시하고 독려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요네상착 부러지민// 선흘꽃에[선흘꽃디] 낭어시랴”가 있다. ‘선흘꽃에[선흘꽃디]’를 ‘서늘꽃에’,³⁰⁾ ‘서늘꽃이’,³¹⁾ ‘선흘꽃디’³²⁾로 잘못 기록

21) 위의 책, 240쪽.

22) 김주백, 앞의 글, 23쪽.

23) 高橋亨, 『濟州島の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53쪽. 155~160쪽(寶蓮閣, 1979. 영인).

24) 양홍식·오태용, 『제주향토기』[프린트판, 단기4291(1958)], 107~116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Ⅱ(집문당, 1974), 116쪽, 129~130쪽, 215~222쪽.

25) 임동권, 위의 책, 같은 쪽.

26) 『국문학보』 제13집(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5), 서귀포시 강정동 현지학술조사(1995. 8. 5~8. 7), 265~267쪽, 276~281쪽.

27) 양홍식·오태용, 『제주향토기』[프린트판, 단기4291(1958)], 107~116쪽; 진성기, 『오돌또기』(우생출판사, 1960), 121~141쪽; 진성기, 『남국의 민요』(정음사, 1977), 123~137쪽; 김영삼, 『제주민요집』(중앙문화사, 1958), 8~34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Ⅳ(집문당, 1979), 126쪽, 186~196쪽; 임동권, 『한국민요집』Ⅴ(집문당, 1980), 67쪽. 92~97쪽;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일조각, 1965), 210~265쪽.

28)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송실어문학회, 2003).

29) 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 543쪽.

30) 高橋亨, 『濟州島の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53쪽. 155~160쪽(寶蓮閣, 1979).

한 경우와 ‘선흘꽃디’³³⁾로 바르게 기록한 경우가 있다. [3]의 “서늘꽃이”는 ‘선흘꽃디’ 또는 ‘선흘고지’의 오기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선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이다. 제주민요에 선흘리의 숲을 ‘선흘꽃’, ‘서늘고지’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이 ‘선흘’은 울림소리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어 ‘서늘’로 발음된다. 또한 ‘고지’ 또는 ‘꽃이’는 ‘수풀’의 제주방언이다. ‘고지’가 ‘수풀[藪]’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라는 사실은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도 보이는데,³⁴⁾ 이기문은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³⁵⁾고 했다. 수집자는 ‘꽃이’를 중세어 ‘꽃[花]이’로 잘못 인식하여 “꽃이”라고 오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의 수집자는 제보자가 “선흘고지”라고 가창한 것을 “서늘꽃이”로 오기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가창기연을 중심으로 사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은 해녀들이 물질 작업하러 뚝배를 타고 물질 작업장까지 오갈 때나 본토로 출가(出稼)할 때 노 젓는 노동이다. 현장론적 입장에서 <해녀노젓는소리>의 사설을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분류하면³⁶⁾ ① 물질하러 나갈 때, ② 물질하고 돌아올 때, ③ 본토로 출가할

영인); 양홍식·오태용, 『제주향토기』[프린트판, 단기4291(1958)], 107~116쪽; 임동권, 『한국민요집』 IV(집문당, 1979), 126쪽, 186~196쪽.

31) 입화, 『조선민요선』(학예사, 1939), 239~242쪽; 최영일, 『제주도의 민요』, 『숭실대학교』 제2호(숭실대학 학예부, 1956); 임동권, 『한국민요집』 II(집문당, 1974), 116쪽, 129~130쪽, 215~222쪽.

32) 제주시 편, 『제주의 향토민요』(제주시, 도서출판 예술, 2000).

33) 김영돈, 『제주의 민요』(신아문화사, 1993), [구좌읍민요 ② 동김녕리];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주)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34) 사투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앞이 높고 뒤가 낮다...주기(州記)에는 이상한 말이 많으니, ‘서울’을 ‘서나’ ‘숲’을 ‘고지’ ‘산’을 ‘오름’이라 한다[村民俚語難識先高後低...州記語多殊音 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이원진, 『탐라지』].

35) 이기문,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제13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3), 151쪽.

36) 가창기연을 기준으로 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분류는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제6집(고전문학한문학연구원학회, 2009), 113~148쪽 참고할 것.

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물질하러 나갈 때 사설만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1]과 [2]는 해녀들이 물질작업 나갈 때 물질작업 준비를 독려하는 관용적 사설이다. 이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각차라	섬에들게
양식짜라	섬에가게
호미죄라	메역비게
빗창죄라	점복떼게

[3]은 해녀들이 물질작업 나갈 때 남보다 먼저 물질작업장에 도착하고자 하는 소망과 노를 힘차게 젓도록 지시하고 독려하는 관용적 사설이다. 이를 표준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년들아	젓어도라	
흔머들만 ³⁷⁾	젓어도라 ³⁸⁾	
요네상착 ³⁹⁾	부러지민	
선흘꽃디	끈은남이	없을소냐 ⁴⁰⁾
요벤드레 ⁴¹⁾	끊어지면	

37) 한 고비만. ‘머들’이란 제주도의 밭에 흔히 구르는 돌맹이들을 쌓아 놓은 밭 속의 돌더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파도가 마루를 이루는 한 고비를 뜻한다.

38) ‘요년들아 젓어도라// 흔머들만 젓어도라’를 ‘요년들아 젓어도라// 내앞으로 절이난다’, ‘요년들아 젓어도라// 흔머들만 앞서가게’, ‘요년들아 흔머들만// 젓어도라 앞서 가게’ 등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요년들아’는 ‘요년털아’로, ‘흔머들’은 ‘흔모루’로 바뀌어 표현해도 무방하다.

39) 요 노의 상책. ‘상책’이란 노의 윗부분.

40) ‘요네상착 부러지민// 선흘꽃디 끈은남이 없을소냐’에서 ‘요네상착 부러지민’을 ‘요네착이 부러지민’으로, ‘선흘꽃디’를 ‘서늘꽃이’나 ‘서늘꽃디’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선흘꽃디 끈은남이 없을소냐’를 ‘할로산에 끈은목이 없을말가’나 ‘목포항구 끈은남이 없을말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3음보 형식의 “선흘꽃디 끈은남이 없을소냐”를 2음보 형식의 ‘가시낭귀 엇일소냐’로 표현하거나, 4음보 형식의 ‘부산항구 가시나무// 엇일수가 아니로다’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부산항구	남천총이	없을소냐 ⁴²⁾
요내홀목	뿌러지면	
부산항구	철도병완	없을소냐

셋째, 구연상황을 기준으로 사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의 구연 현장인 바다는 조류와 풍향·과고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구연 현장의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처럼 <해녀노젓는소리>는 가변성이 많은 바다에서 가창되는 노동요이기 때문에 구연 현장의 상황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분류하면 ① 激波와 逆風일 때, ② 大波와 無風일 때, ③ 小波와 無風일 때, ④ 小波와 順風일 때, ⑤ 목[項]을 지나갈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파와 무풍일 때 사설만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다음에 제시한 사설은 바람은 불지 않고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덩이인 ‘눗둥이(눗텅이)’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노를 저어 가는 현장을 노래한 사설을 표준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요목조목	울돌목가
우리베는	잘올라간다
잘잘가는	жат나무베야
술술가는	소나무베야
이여싸	이여싸

41) 요 노의 벤드레. ‘벤드레’란 낚시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42) “요벤드레 끊어지면// 부산항구 남천총이 없을소냐”에서 ‘부산항구 남천총이’를 ‘선홀 꽃디 물정당줄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산항구’는 어느 곳으로 출가물질을 가는냐에 따라 ‘인천항구’, ‘목포항구’로 대치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천총이’는 ‘아사노가’, ‘지름줄이’, ‘늑보줄이’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없을소냐’는 ‘엇일손가’로 표현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아사노’는 일본어 ‘あさ[麻]’와 우리말 ‘노’의 합성어로 삼으로 꼬아 만든 밧줄을 뜻하고, ‘늑보줄’은 로프(rope)를 뜻한다.

요눗랭이	뺨을먹고
동긱동긱	슬쩍싱고
븃름통을	먹어싱가
구름통을	먹엇던가
동긱동긱	잘올라온다
이여라차	이여차
바람통을	마셨는지
동긱동긱	잘도썰다
기름통을	마셨는지
미끌미끌	잘도간다
우리성제	삼성제드난
등도맞고	네도맞아
그만흐믄	홀만흐다
쿵쿵지라	쿵쿵지라
흔머들랑	젓영가게
쳐라쳐	쳐라쳐라
잘도간다	요년덜아
일심동력	젓어나줍서
이여짜	이여짜
하뇌심은	선주사공
뺨머리만	둘러줍서
젓거리로	우경간다
어기여차	소리엔
베올려	가는구나
뒤여차	소리엔
베가느려	가는구나

넷째, 해녀들이 물질작업 상황을 노래한 사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사설은 자신이 물질 기량이 모자람을 한탄하는 사설을 표준화한 것이다.

흔썩손에	빗창썰곡
흔썩손에	테왁썰영
흔질두질	들어가난
홍합대합	빗죽빗죽
전복고동	방글방글
메역감태	훗칙훗칙
미역귀가	너홀너홀
소라캐카	점복캐가
성세나빠	못 홀러라
요물아래	은과금이
철석같이	깔렸건만 ⁴³⁾
나재주가	모자란에
높은낭에	열매로다
낮은낭에	까시로구나 ⁴⁴⁾

43) “요물아래 은과금이// 철석같이 깔렸건만”에서 ‘은과금이’를 ‘고동생복’으로, ‘깔렸건만’을 ‘쌓였건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3음보 형식의 요물아래 은과금이 깔렸건만’으로 가창하는 경우도 많다.

44) 2음보 3행 형식인 “나재주가 모자란에// 높은낭에 열매로다// 낮은낭에 까시로구나”를 2음보 1행 형식인 ‘높은낭에 열매로다’나 ‘내숨바빠 못 홀더라’ 또는 ‘내숨짧아 못하더라’로 흔히 가창하지만, 2음보 2행 형식인 ‘나의힘이 없음으로//건질수가 없구나’로 간혹 가창하기도 한다. 여기서 2음보 3행 형식으로 사설을 표준화한 것은 ‘높은낭에 열매로다 // 낮은낭에 까시로구나’의 대구형식의 묘미를 살리려는 의도에서다.

V. 맺음말

본고는 민요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사설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해녀노젓는소리>를 대상으로 하여 사설의 활용 양상과 사설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사설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은 제주어 교육과 해녀의 삶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가 하면, <해녀노젓는소리>를 전승하기 위한 전수 교육의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었다. <해녀노래> 기능보유자가 가장한 사설만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해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본토에도 거주하고 있고, 자연적인 조건이 아닌 인위적인 조건에서는 현재까지도 가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 필요성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해녀노젓는소리>의 선율은 8분의 6박자 하나지만 사설은 가창자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설을 가창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자료집의 사설이 오기나 어석이 오류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녀노젓는소리>는 해녀집단의 생활과 문화에서 전승되고 향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넷째, 민요 사설은 가창자와 청취자의 지배적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효용성은 해녀들의 삶을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서 기존 사설을 재구성한 민요 교육용 사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을 표준화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오기된 사설을 바로잡는 것이고, 둘째는 가창기연(歌唱機緣)을 중심으로 사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구연상황을 기준으로 사설을 일정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넷째는 물질작업 상황을 일정

한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의 표준화한 사례는 네 가지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구연상황과 가창기연에 따라 물질 작업 실태, 노 젓는 노동, 해녀의 공동체 문화, 조류와 풍향, 소득 실태, 개인적 서정 등의 표준화된 사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사설은 해녀들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설이어야 한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 표준화의 실체는 뒤로 미룬다.

〈참고문헌〉

- 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 한국민요학회, 2004, 11~48쪽.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8.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 _____, 『제주도민요연구 -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_____,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3.
- 김영삼, 『제주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 김주백, 『여인국순례, 제주도해녀』, 『삼천리』창간호, 삼천리사, 1929.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 민요 해설집 -』, (주)문화방송라디오국, 1992.
- 박관수, 『민요의 향유론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 『한국민요학』 제20집, 한국민요학회, 2007, 97~114쪽.
- 박관수, 『풀썬소리 사설의 엮음 원리』, 『한국민요학』 제19집, 한국민요학회, 2006, 121~162쪽.
- 양홍식·오태용, 『제주향토기』, 프린트관, 단기4291(1958).

- 이기문,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3, 145~154쪽.
-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 수록 자료집 개관 및 해제」, 『영주어문』 제9집, 영주어문학회, 2005, 271~290쪽.
- _____,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한국민요학』 제16집, 한국민요학회, 2005, 235~262쪽.
- _____, 「〈해녀노짓는소리〉 가창기연의 소멸시기」, 『한국민요학』 제24집, 한국민요학회, 2008, 141~161쪽.
- _____, 「〈해녀노짓는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제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113~148쪽.
- _____,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459~507쪽.
- _____,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원진, 『탐라지』
- 임 화, 『조선민요선』, 학예사, 1939.
-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 _____, 『한국민요집』 IV, 집문당, 1979.
- _____, 『한국민요집』 V, 집문당, 1980.
- 정우택, 「아리랑 노래의 정전화 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7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287~317쪽.
- 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 제주시 편,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 도서출판 예술, 2000.
- 『제주어 교육자료』 II - 제주어와 생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 조동일, 「구비문학 현지조사 방법」,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48~98쪽.
-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정음사, 1977.
- _____, 『오돌또기』, 우생출판사, 1960.
- 최영일, 「제주도의 민요」, 『송실대학보』 제2호, 송실대학 학예부, 19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구비문학 조사 방법』, 1979.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국문학보』 제13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5.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53면. 155~160쪽; 寶蓮

閣, 1979, 영인.

<http://cafe.daum.net/soriwat>

Methods to Standardize Lyric Words for the Transmission and Education of Folk Songs

Lee, Seong-hun*

Work songs have long been disappeared at workplace. The transmission of folk songs now depends on education. Given that the transmission of work songs cannot be done naturally, standardization of lyric words is essential to teaching general people folk songs.

There were some efforts to unify a classified of song types but none to standardize lyric words. As we already know, lyric words of folk songs, which are oral literature, not documentary literature, created by a group of people rather than an individual. This explains why it is difficult to select or decide specific lyric words as representative works.

This study explores how to standardize lyric words for the transmission and education of folk songs based on <Woman Divers' Rowing Songs>. The act of rowing, which is the chance to sing <Woman Divers' Rowing Songs>, has long been disappeared at the workplace, and the transmission of the song has failed as well.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andardization of <Woman Divers' Rowing Songs> provides standard data for the education of lyrics words as well as basic data for the education of singing the songs. <Woman Divers' Rowing Songs> recorded in the previous data has errors in writing and translating the lyric words. This is why we need to select general lyric words from those recorded in Jeju Island and the

* adjunct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mainland, correct the errors in writing and translating the words, and classify/standardize the words based on the chance to sing (the act of rowing).

Key-words : standardize lyric words, folk songs, work songs, 〈Woman Divers' Rowing Songs〉, transmission and education, Jeju Island, the chance to sing (the act of rowing)

〈이 논문은 6월 30일 투고되어 7월 11일~7월 31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쳐 8월 7일 게재 확정되었음〉